

'19년 관선이사' 조선대 정이사 체제 전환 시동

첫 공청회, 재력가 인수·국립화 등 빠르면 내년 1월 결론

지난 19년 동안 임시(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빠르면 내년 1월 정(正)이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백수인 교수)는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후 처음으로 18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백수인 추진위원장은 이날 "임시이사체제로는 임기(2년)가 불안정하고, 학교법인의 합병·중요재산의 변경 등 학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개방이사 3인·총장 1인 등 총 15인 이내로 이사추천위원회를 꾸려 현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1월 정이사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병걸 교육인적자원부 사회지원과장도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교 운영·공급유용 등 40가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다"며 "하루빨리 정이사 체제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진위 방안 및 일정=추진위는 ▲조선대 설립정신 구현 ▲옛 경영진(박철웅 전 총장 가족)의 학교 운영 참여 철저 배제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등을 정이사 체제 전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양식 있는 재력가의 학교 인수·경영 ▲각계 각층 대표로 정 이사 선임 ▲국립화 ▲시립화 ▲특수법인 또는 공사

화 등 5가지 방안을 놓고 교직원·학생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추진위는 오는 22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교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고, 12월7일까지 정이사 후보를 확정, 2008년 1월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이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장애물은 무엇? =자산규모 1조 원, 연간 예산 3천억원, 학생·교직원 2만1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막대한 운영 자본을 투자할 기업이나 독자가 찾기가 쉽지 않은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의 국립대학도 공사화·특수 법인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립대학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라 관측도 많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다. 특수법인 또는 공사화로는 교육재정 확보가 불가능하다.

김용재 이사장은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의 한계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추진하지 못했다"면서 "내년부터 정이사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8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은 내년 1월 정이사 체제 전환 방침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 조선대는 중요 정책 물거품...비정상 운영

조선대는 지난 1988년 2월 고(故) 박철웅 재단이사장의 학내비리에 대한 교육부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그 후 조비오 신부·강신석 목사 등 지역인사·동문 등 50여 명이 임시이사를 맡아왔으나, 중요 정책이 물거품 되는 등 학교 운영이 비정상적이었다.

지난 2005년엔 의과대학 간호학과와 조선간호대학(3년제)을 통합

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임시이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불허해 무산됐다.

교육부는 지난 2006년 6월 "학

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등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 학교 측에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

다. 현재 조선대 임시이사는 ▲김용재 변호사(이사장) ▲김주훈 총장 ▲문병란 시인 ▲윤용선(전 언론인) ▲김남수(동문) ▲이원구(동창회장) ▲송영무(순천대 교수) ▲이영찬(전북대 사무국장)씨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김 이사장 등 6명은 내년 1월2일, 송영무·이영찬씨는 4월에 임기가 끝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교사 채용 미끼 수익 뜯어

전남경찰, 사학 설립자의 손자 구속

교사 채용을 미끼로 교직 희망자들로부터 수익원의 금품을 뜯어낸 사학 설립자의 손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정식교사로 채용해줄겠다고 속여 교사 희망자들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의 돈을 받아 가로챈 광주 S학원 설립자의 손자인 김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9일께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은 권모(31)씨에게 "체육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8명으로부터 3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권씨 등 피

해자들에게 "S학원 설립자 손자로, 실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학교 재단에서 김씨의 공식 직책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단 설립자 사망 이후 설립자의 사위가 재단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학교가 올해 인문계열 5개 학급 증설로 인해 교사 수요가 발생하자, 김씨가 이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피해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채팅 험담이 부른 끔찍한 살인극

북부경찰, 40대 여자

인터넷 채팅에서 오간 험담이 끔찍한 살인극을 빚었다.

광주 북부경찰은 18일 채팅 중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가정주부를 목졸라 살해한 고모(40·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씨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1일 채팅사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에서 내연녀(33)의 선배인 장모(여·38·광주시 북구 오치동)씨와 채팅을하다가 장씨가 "똥도 없으면 내 동생 애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느냐?"라고 힐난하자 다음날 오전

11시에 광주에 내려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골삭기 운전기사인 고씨는 3년 전 채팅 음악방에서 알게 된 장씨에게서 내연녀 김모씨를 소개받아 사귀어오다 최근 결별했으며, 그 이유가 장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6개월 전 지나친 욕설과 비방으로 채팅사이트에서 제명되자 다른 아이디로 활동해온 채팅 중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해된 장씨의 집 컴퓨터 로그인과 채팅 기록과 휴대문 통화 내용을 조사, 고씨를 붙잡았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장흥군청 건축과 공무원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8일 장흥군청 건축과 김모(40·건축 7급)씨를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전남도 지정문화재 관리사업과 관련, 문화재 안내판(18개)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D 광고업체 문모(62)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장흥군 용산면 목촌리 동백림순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그루지아 화물선 좌초

목포해경, 13명 구조

지난 18일 낮 12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북동쪽 10.6km 해상을 항해하던 그루지아 선적 2천44t 급 화물선 'MV. 알미라지' 호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은 '여리암'에 부딪쳐 좌초됐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예브게니 디노프(50·러시아)씨 등 선원 13명은 조난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목포해경 경비정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사고 선박은 지난 16일 중국 신강항을 출발, 일본 야스시로 항으로 항해 중이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나원침 (7335)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의료대 대학

KCC함포, 시스템함포 생산·시공

▶ 02-2629-1111 ▶ 02-2629-1111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의료대 대학

실리콘·방수제·합착제·타이브

▶ 02-2629-1111 ▶ 02-2629-1111

광주서 무게 6kg 대형 고구마 캐내



○광주시 북구 태령동 인근 야산 고구마밭(330㎡)에서 김기현(77·북구 중앙동)씨가 길이 60cm·무게 6kg의 대형 고구마(사진)를 캐 눈길.

○김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에 밭에서 흥미로 지난 3월 심은 고구마를 캐던 중 '느낌'이 달라 조심스럽게 10분간 흙을 파헤치자 초대형 고구마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김씨의 밭에서는 또 일반 고구마보다 훨씬 큰 20~25cm 크기의 고구마가 4개 더 나왔는데, 김씨는 "시립박물관에 기증하려 했더니 '골동품이 아니어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웃음.

/강필성기자 kps@

Advertisement for 'Kwangju Real Estate' (광주 부동산)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The ads include property address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 Key listings include:

- 신안군 흑산면 대흑산도 북동쪽 10.6km 해상 (Seafront property)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North Gwangju)
- 전남 순천시 (South Jeolla Province)
- 전남 목포시 (Mokpo)
- 전남 장흥군 (Jangheung)
- 전남 함평군 (Hamgyeong)
- 전남 곡성군 (Gokseong)
- 전남 구례군 (Gurye)
- 전남 완주군 (Wanju)
- 전남 임실군 (Imseong)
- 전남 고창군 (Gochang)
- 전남 부안군 (Buan)
- 전남 진안군 (Jinan)
- 전남 무안군 (Mu'an)
- 전남 영광군 (Gwanggyeong)
- 전남 장수군 (Jangsu)
- 전남 영암군 (Yeongam)
- 전남 신안군 (Shin'an)
- 전남 완도군 (Wando)
- 전남 보성군 (Boseong)
- 전남 담양군 (Damyang)
- 전남 영동군 (Yeongdong)
- 전남 함평군 (Hamgyeong)
- 전남 곡성군 (Gokseong)
- 전남 구례군 (Gurye)
- 전남 완주군 (Wanju)
- 전남 임실군 (Imseong)
- 전남 고창군 (Gochang)
- 전남 부안군 (Buan)
- 전남 진안군 (Jinan)
- 전남 무안군 (Mu'an)
- 전남 영광군 (Gwanggyeong)
- 전남 장수군 (Jangsu)
- 전남 영암군 (Yeongam)
- 전남 신안군 (Shin'an)
- 전남 완도군 (Wando)
- 전남 보성군 (Boseong)
- 전남 담양군 (Damyang)
- 전남 영동군 (Yeongdong)